

목포, 세계 1위 해상풍력터빈사 '베스타스' 공장 유치

목포시 박홍률 시장은 최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스 A/S(이하 베스타스), A.P. 몰러-머스크 A/S(이하 머스크),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와 목포신항 내 해상풍력 터빈공장 설립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베스타스와 머스크는 국내 해상풍력 사업 신규투자를 위해 목포신항을 비롯한 전남지역을 여러차례 방문해 보유항만시설 및 산업활성화 가능성 등 투자여건을 면밀하게 타진해왔고, 최종적으로 목포시를 선택하게 됐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글로벌 1위 풍력 터빈제조사인 베스타스와 글로벌 통합물류 기업인 머스크는 3천억원을 공동 투자해 목포신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 20만㎡(약 6만여평)를 확보하고, 연 최대 150대 생산 가능 공장을 건립, 2027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베스타스는 국내 해상풍력 연관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핵심부품 국산화 등 지역 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고, 머스크는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규 물동량 창출을 통해 목포 신항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한편, 목포 신항은 해상풍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내 최적의 입지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목포시는 지속가능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상풍력 전용 인프라 확충, 통합 기업지원센터 구축,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제산업 측면의 한계에 봉착한 전라남도 서남권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해상풍력 신산업을 통한 유관기업 대거 유입,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태 기자



목포시 박홍률 시장은 최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스 A/S(이하 베스타스), A.P. 몰러-머스크 A/S(이하 머스크),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와 목포신항 내 해상풍력 터빈공장 설립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목포시 제공

무안 남악파크골프장 재개장

무안군 남악파크골프장이 2개월 간의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2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남악파크골프장은 지난 2022년 11월에 신규 개장했으며 면적 1만8천802㎡ 부지에 18홀 규모로 남악신도시에 소재해 접근성이 편리하고 쾌적한 클럽하우스와 편의시설 등으로 연간 이용객이 4만 5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서남권의 명품 파크골프장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동절기 휴장 동안 골프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보행로 잔디 보호매트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대폭 개선했으며, 배수로 시설을 보완해 물 빠짐을 개선하고 잔디 예초, 시비 살포 등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김명수 신도시지원단장은 “남악파크골프장은 개장 후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이 사랑해 주시고 이용해 주셔서 도내 파크골프장 중 으뜸 명소로 알려져 있다”며, “관내 17개 클럽 동호회 회원들과 주민들이 건강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고민재 기자

영암, 농정대전환 프로젝트 공청회 성료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억농부 500명과 청년농업인 1천명 육성, 스마트팜 100배 확대에 나선다.

군은 최근 군청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농정 혁신대장정의 출발을 알리는 ‘농정대전환 프로젝트 공청회’ 개최했다.

농정대전환 프로젝트는 쌀 소비량 감소 및 가격 하락, 1차산업 중심 농업, 청년농 부족 및 농업인구 고령화, 농촌 소멸 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농업을 실현하는 계획이다.

공청회 첫 발표는 한병한(유)한터 대표가 맡았다. 그는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영암군의 강점과 단점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영암군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중심 식량작물 생산 및 전략 작물 산업화 구축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융복합 농식품 산업 육성 △K-웰니스 도시활성화 힐링 농업농촌 구현 등이었다.

이어 우승희 영암군수는 농정대전환 프로젝트(안)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272명의 1억 농부를 2026년까지 500명으로 확대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을 309명에서 2030년까지 1천명으로 육성하겠다. 청년농 육성 전초기지인 스마트팜을 현재보다 100배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계약재배와 공선출하를 실시하고, 유통·가동·판매에 2배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이어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소미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박사, 안병한(유)한터 대표, 이맹종 영암축협장, 김원식 서영암농협장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질의응답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청중 즉석 질문 방식으로 열려 영암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창구역할을 했다. /이문수 기자

신안군, 묘목생산농가 전국 판매로 확대

‘1섬 1정원’, 사계절 꽃피는 섬 조성에 나서고 있는 전남 신안군의 ‘정원수 협동조합’이 출범 10개월, 묘목생산 시작 2년 만에 특목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최근 신안군 정원수협동조합이 국내 최대 나무시장 1등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대립묘목농원(주) JB가든센터(이하 JB가든센터)와 정원식물 판로개척

을 성사했다. 이번에 성사된 내용으로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신안군정원수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정원식물을 수출입하는 유통사인 JB가든센터에 100여 만원을 계약 체결했다. JB가든센터의 김경범 대표는 “JB가든센터는 신안군정원수협동조합의 주민참여형 양묘소독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경관수목 등의 품종 관

리의 우수성을 믿고 이번 계약을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조합의 적극적인 양묘사업은 청·장년·노인의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 홍보를 통해 경관식물 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안군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문의는 신안군 정원수협동조합으로 하면 된다. /장흥근 기자

함평, 민원담당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함평군이 민원 업무담당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 부안군 일원에서 최근 이틀에 걸쳐 2024년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개 조로 나누어 실시된 이번 힐링 프로그램은 채석강 힐링문화 탐방과 스트레스를 날리는 메타버스 체험활동 등, 행정 최일선에서 민원인과 접점을 갖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직원은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에서 벗어나 다양한 힐링 체험으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스로의 다짐의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강진, 찾아가는 직장인 금연클리닉 운영

강진군보건소는 직장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금연 홍보는 지난 3월 22일을 시작으로 5월 10일까지 만성질환 예방 홍보 캠페인과 연계, 금연상담사, 간호사, 영양사가 팀을 이뤄 관내 사업장을 찾아가 흡연과 간접흡연에 대한 위해성을 알리고 흡연자

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 및 폐활량 측정, 니코틴 의존도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흡연자에게는 일대일 금연상담을 통해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렸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찾아가는 금

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교육을 강화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금연희망자를 위해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6개월간 일대일 금연상담서비스와 금연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금연 성공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하고 있다. /박종욱 기자

